



## 박소현의 섹.시.토.크

J는 그날 저녁, 친구 남편이 바람난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주고 있었다.

“안마방이라는게 그렇게 변태영업이 심한 곳인지 몰랐어. 나는 그냥 안마나 좀 해주고 만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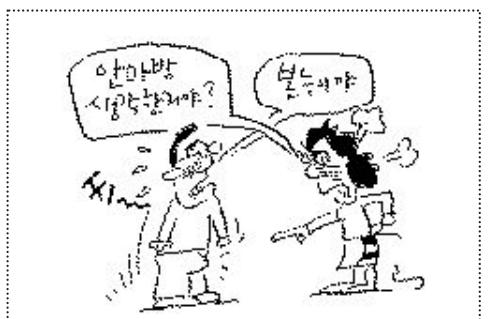
친구가 남편의 죄를 날낱이 묻기 위해 인터넷을 뒤진 끝에 발견한 동영상과 경험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러했다. 한번 맛을 본 사람은 쉽게 끊기 힘들다는 말을 증명하듯, 평범한 유부녀들은 신발 벗고도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이 난무하는 곳이었다. 안마만 받고 왔다는 남편의 주장에 꼽까지 짓느냐 아니나를 알아보기 위해 안마방의 정보를 수집하던 친구도 결국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나. 집에서 아무리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꽃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결국은 더 화끈한(?) 여자를 찾아 밤거리를 헤매고 부인을 속여가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 남편이란 존재구나... 친구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J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암담한 심정을 함께하고 있었다.

J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끄낸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남편이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자들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오랜 세월 유지해 왔던 사랑과 신뢰가 한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할 참이었다.

그런데 전달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아니 내가 받는 고통을 적나라하게 전달하기 위해 안마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너무 자세히 전달한 것이 최근이었다.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던 J는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다.



거리는 남자들이나 그 이야기에 흥분하는 내 남편이나 한 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 남편을 대신해, 아니 본성은 못 이기는 많은 숫컷들을 대신해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해야 할 판에 그 숫컷들 뜻지 않게 흥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아랫도리를 잡힌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다.

## 안 다녀보면 몰라

## 안마방이 얼마나 재밌는지

## 생각만 해도 자다가

## 그녀석은 벌떡벌떡 서...

“제가 알아서 혼자 서는데 어떡하라고. 남자들은 다 똑같아. 이게 본능이라구,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본능 갖고 그러면 어떡해?”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자의 본능에 진저리를 치는 미누라에게 본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현장을 들켰으니 민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J는 남편의 반응에 순간 ‘좀

심했나?’ 하고 생각했지만 반성보다는 수치심이 더했다. 내 남편도 결국 별수 없는 인간이구나.

며칠이 지나 그녀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그날의 일을 우리에게 털어놓았다. 그들 부부는 며칠째 냉전중이라고 했다. 그녀는 대체 누가 잘못한 거냐고 물었다.

“굳이 죄를 물어야 한다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난 남편의 그것에게 죄가 있는거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본능이 움직이도록 유발한 네가 더 잘못이야.”

“그 상황에 화를 낸 너나, 같이 화를 낸 남편이나 똑같아.”

“애초에 바람은 피운 친구 남편이 제일 나쁜 거 아니야?”

“그런 안마방을 승인한 정부에 죄를 물어야 해.”

죄를 물어야 할 대상은 갈수록 넓어졌다. 하지만 결론은 결국 이렇게 났다.

“본능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무데서나 욕구를 해결하는 사람은, 그게 남자든 여자든 모두 유죄야.”

결론은 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남자의 본능이 얼마나 예측불가, 제어불가인가 깨달은 우리는 더 우울해졌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남편에게 정조대를 세워야 할 것인가? 답은 정말 없는 것일까?

## 검색절정 키워드

## 검색

‘드디어 터졌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긴 부상의 공백에서 벗어나 풀럼을 상대로 을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호 골이자, 통산 7호 골을 터트리며 이번 주 네이티즌의 이목을 끌었다.

네이티즌은 풀럼의 골문을 가른 박지성의 헤딩골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리며 인터넷 세상을 들썩이게 했다. 경기를 지켜본 네이티즌들은 “정말 멋진 골이다. 박지성이 드디어 세계 축구스타의 반

열에 오르고 있다!”, “늦게까지 경기 보느라 잠을 못 잤다. 앞으로 잠 못 자도 좋으니 골만 더 넣어주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통산 7호 골로 인터넷 인기 검색어에 올랐던 박지성은 프리미어리그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면서 다시 한 번 네이티즌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이찬과의 폭행사건으로 네이티즌의 주목을 받았던 탤런트 이민영이 또다시 폭행사건에 휘말리면서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 “드디어 터졌다” 박지성 7호골

경찰에 이민영이 20대 여성성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비 신랑 ‘거성’ 박명수도 인기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 ‘무한도전’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노농 각개면 박명수는 지난 5일 깜짝 결혼 발표를 해 네이티즌의 축하 세례를 받았다. 예비 신부가 8세 연하 미모의 여의사라는 사실이 알려져 자 네이티즌은 더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